

이제는 97년에 우리의 대학인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개략적으로 전망한 글이다.
CT-2+라는 발신전송 전화기가 등장함으로써 호출기만으로는 욕구를 채우지 못했던 신세대들에게 크게 어필할 것으로 보이며 개개인이 인터넷 전자편지함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한다.
끝으로 반드시 듣고 싶었던 강의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강을 못했던 강의의 경우 비디오를 통해 수강이 가능해짐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멀티미디어적 요소가 가미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캠퍼스 멀티미디어 시대가 온다

I



무선호출기의 붐을 넘어 올해는 'CT-2+'의 붐이 우리의 대학가에 몰아쳐 온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학생들로 인해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학기초, 개강과 더불어 강의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그어느때 보다도 진지했으며 교수 또한 호응이라도 하듯 열심히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빠비비비 빠비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호출기 소리는 강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들고 말았다. 호출을 받은 학생은 주변의 분위기를 의식해서 허둥지둥 호출기를 확인하고 강의가 끝난 후 곧바로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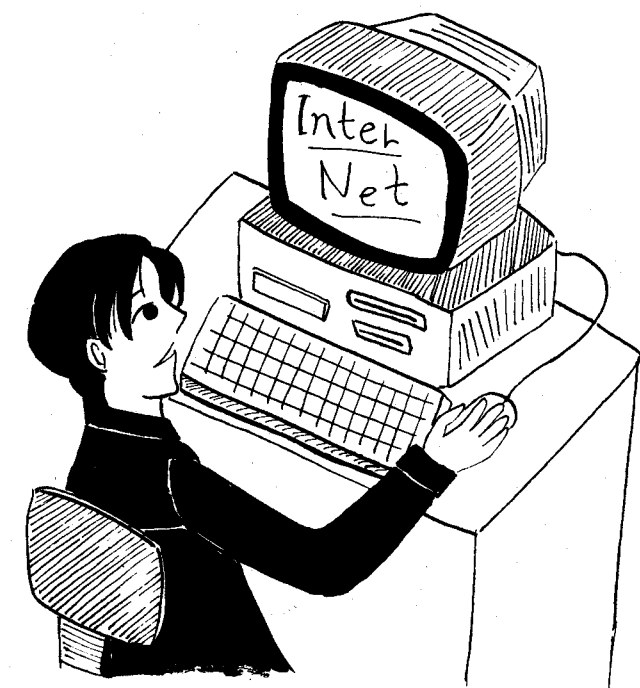
작년 한해도 안 강의실 곳곳에서 비밀배재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의 한 단면이다. 작년의 경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올해에는 더욱 흥미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다음의 모습을 살펴보자.

호출을 받은 학생은 요즘 소위 핸드폰으로 보이는 듯한 것을 주머니에서 꺼낸다. 유유히 액정에 적혀있는 번호를 확인한 후 강의실 밖으로 살짝 나간다. 강의실 앞에서 학생은 바로 전화를 걸고 통화가 끝난 후 다시 강의실로 돌아와서 교수의 강의를 청청한다.

위에서 잠깐 보인 핸드폰 같은 물체는 올해부터 상용화되는 'CT-2+'라는 물건이다. 이제는 호출

II

인터넷상에 전자편지함(E-mail address)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위로 다가온다.



기로서는 만족을 못하는 이동통신의 주소비자층인 대학생들에게 CT-2+는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핸드폰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경제성을 쉽게 말해서 비교적 싸다는 지니고 있으며 광역 호출기가 내장되어 어디에서라도 호출이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시내 전화요금에 넘지않는다 한다.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젊은층의 취향을 반영하여 우리들의 눈을 자극할 것이라 하니 가히 무선호출기의 붐을 넘어 올해는 CT-2+의 붐이 우리의 대학가에 몰아쳐 오지 않을까.

이제 캠퍼스 전체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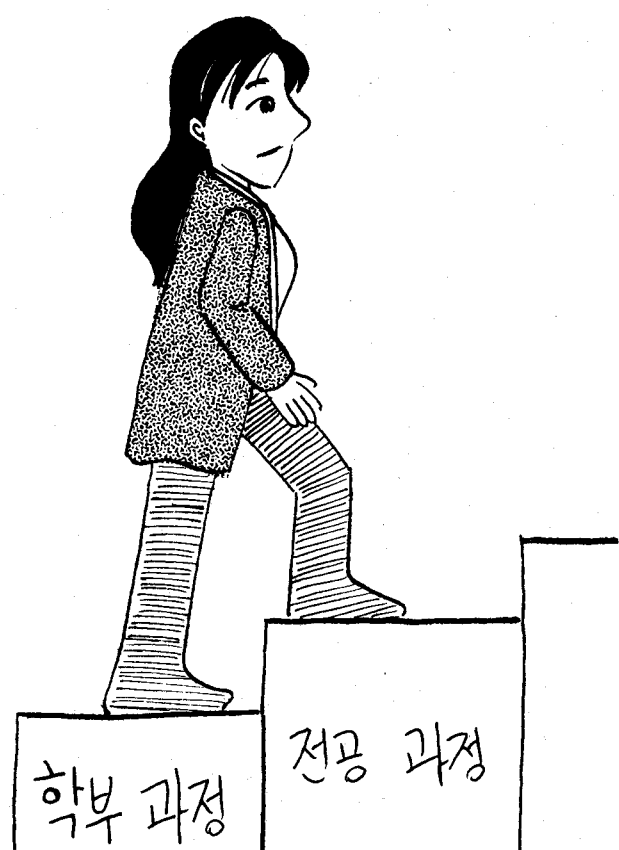
학생들이 유난히 학교 곳곳에 설치된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있다. 예년에도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이지만 올해에는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한 것 같다.

인류 최대의 통신망인 인터넷 열풍은 올해에도 계속되어 이제 대학생이면 인터넷상에 전자편지함(E-mailaddress)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위로서 다가온다.

전자편지함을 통해 전세계 어느 누구와도 편지 왕래가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할 요금은

III

선배의 일거수 일투족이 후배들의 뇌리에는 전공을 선택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없다고 한다. 또한 가까운 연인이나 친구와도 소식전달이 용이하다고 하니 가히 중이 필요없는 세상이 한층 다가오는 느낌이다.

개강 이후 학기초의 밤거리에는 선후배간의 따뜻한 운우의 정이 오가는 자리가 마련된다. 예전의 조출했던 과단위의 신입생 환영회는 달리 이제 학부라는 다른 개념의 단위로 선후배간의 자리는 마련된다.

1학년 학부 신입생들과 과에 있는 2,3,4학년 선배들간의 입장은 이제 확연하게 다르다. 1학년은 기본적인 학부과정을 수료한 후 좀더 심층적인 학문을 배우기 위해 1년이나 2년후에는 전공을 다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한다. 그러나 선배들의 경우는 대학에 들어올때부터 전공을 완전히 정하고 들어왔기에 대학에 다니면서 또하나의 선택을 해야만하는 후배들의 어려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달라지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을 미리 한번 살펴보자.

예전에 비해 대규모화된 신입생 환영회 자리는 다소 산만하다. 과규모가 아닌 마치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자리 같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선배들은 자리가 넓은 장소를 마련하느라

IV

반드시 듣고 싶었던 교수의 강의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강을 못했던 강의의 경우 비디오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게 되는 원년이 바로 올해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만 했다.

이미 전공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과는 달리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들의 눈망울은 이리저리 돌아다보고 있다. 마치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만 하는가를 이 자리에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의무감이 배어있는 눈초리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만큼 예전의 끈끈함은 종적을 감추어버린 듯 하다.

이제는 소속감보다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모든 것의 가치를 앞지르는 상황. 선배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후배들의 뇌리에는 전공을 선택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이상에서의 모습을 반영이라도 하듯 신입생들의 불타는 향학열은 선배들의 그것을 압도한다. 마치 고등학교에서의 입시열기가 대학1학년에도 연장된듯한 분위기이다.

미래의 직업을 가지는데 있어 하나의 과정으로서 규정되어진 대학사회는 이제 서서히 자유란 단어 대신 경쟁이라는 단어가 자리매김되어진다.

97년 올해는 수업의 방식에 있어서도 또다른 전형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재택강의라는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강의가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올해에는 비디오와

TV수상기를 이용한 수업 방식이 그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명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충분한 강의의 경우 부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반드시 듣고 싶었던 교수의 강의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강을 못했던 강의의 경우 비디오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게 되는 원년이 바로 올해이다. 명망있는 교수님의 모습을 교내 TV에서 볼 날도 멀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 기대한다.

또한 현재 교내에 서비스 되고 있는 총24개 채널의 위성방송에 대한 수업에 있어서의 사용폭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어문계열의 경우 현지의 문화적인 모습과 언어까지도 생생하게 위성방송 서비스를 통해 접해볼 수 있는 상황이 구현된 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97년은 전체 교육에 있어서 첨단 기능을 대폭적으로 반영하는 해로서 멀티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이 돋보이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인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의 폭이 대폭확대되는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광섭 기자)

'97 Cyber University Fair in Korea

「인터넷 & PC통신 대학입시박람회」

넓은세상 넓은가슴 사이버 공간에서 당신의 진로를 결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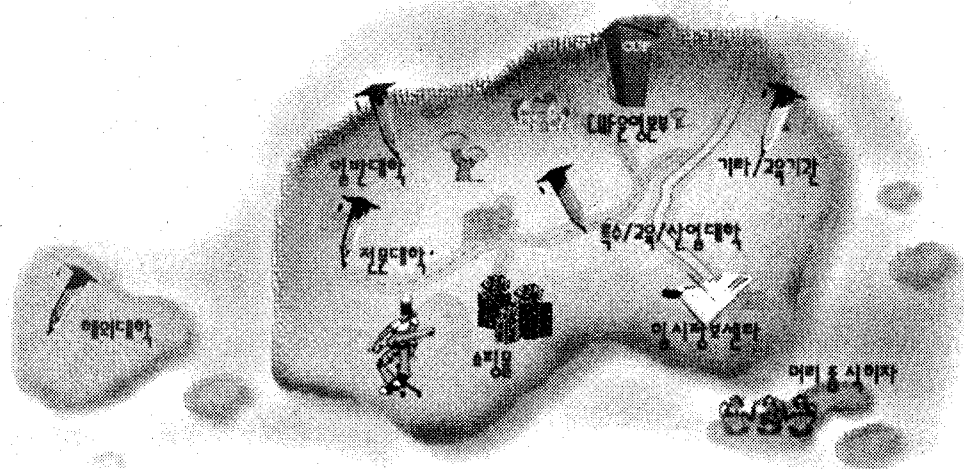
명칭 : '97 Cyber University Fair in Korea
일시 : 1996년 12월1일 ~ 1997년 9월30일 (11개월간)
참가대상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학부모 및 지도교사, 기타 Internet user)
참가예정기관 : 국내외 대학 및 전문대학, 기타 교육관련 기관
예상참가인원 : 100만명(국내외, 추산)
주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신문사, 데이콤

◆서비스내용 : 전국 의 일반대, 전문대, 특수·교육·산업대학 모집요강 및 학교정보
·논술대비자료 및 전년도 출제 문제
·수능점수별 지원가능대학
·해외유명대학 검색 및 유학정보안내

◆기타사항
·인터넷 주소 : <http://www.unicoop.co.kr>
·PC통신 : 천리안(데이콤) 접속후 go cuf
·ARS : 02)700-4884(입시정보, 합격자발표 안내), 02)700-2772(합격자 발표)

◆문의 및 상담
·C.U.F. 공동사무국 : Tel 278-1911, Fax 263-2589 담당자 : 윤홍선, 권영태, 장정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신문, 데이콤, E-Mail : seoch@mail.unicoop.co.kr
·참가회향대학은 C.U.F. 공동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한국교육대학협의회, 한국대학신문사, 데이콤



천리안 접속후 go cuf
<http://www.unicoop.co.kr>
ARS : 02)700-4884, 700-2772